



|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|
|  |  | <b>보 도 자 료</b>                   |   | 수도권매립지 종료 |  |
|   |  | 배포일자<br>2021년 11월 24일(수)<br>총 2매 | <br>환경특별시 인천 |           |  |
| 담당 부서<br>건설심사과  | 담당 자<br>• 건설관리담당 계명수 ☎440-3741<br>• 담당 자 남양환 ☎440-3743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
| 사진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고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|
| 보 도 일 시  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

**인천시, 지역생산 우수 레미콘 사용 활성화에 노력**  
**- 관내 건설현장에 인천지역 자재(레미콘 등) 사용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-**

인천광역시시는 지난 11월 23일 지역 건설현장에서의 레미콘 등 자재·인력·장비와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.

이날 간담회는 관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인천지역 생산 레미콘이 아닌 타 지역의 레미콘 사용과 관련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지역 자재(레미콘 등) 사용 확대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.

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시 원도심재생조정관, 시 건설심사과장과 부평구·계양구·서구 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다.

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3개 구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레미콘 사용실

태를 점검하고, 향후 건설 예정인 아파트 등에 대해 레미콘뿐만 아니라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지역자재·인력·장비 사용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가 논의했다.

또한, 일선 구에서 인·허가 후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하도급률을 제고해 줄 것과 지역자재·인력·장비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, 각 건설현장의 참여 근로자, 시설물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한편, 인천시는 공공분야의 원·하도급 수주율은 높으나, 민간분야에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실태가 낮은 점을 개선하고자 민간분야에 대해 합동세일즈를 시행하고 있다.

조택상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“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레미콘 등 자재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”며, “지역업체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과 우수 제품에 대한 장려대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< 간담회 사진 >

